2017 태국 문화체험 결과 보고서

정치외교학과 최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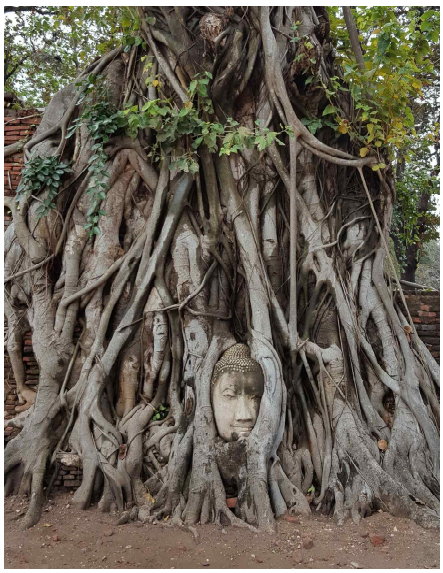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이번 국제학부 해외문화체험을 통해 따뜻한 태국에서 3박 5일간의 알찬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영하의 추운 한국으로 돌아왔다. 실질적으로 태국에서 꽉 찬 4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첫째 날은 아침 9시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오후 1시 30분경에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직 겨울 옷차림이었던 내 몸에서 땀이 삐질삐질 흐르기 시작했고, 드디어 방콕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가이드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왓 포 사원**이었다. 태국은 국민의 90%이상이 불교 신자로, 수도인 방콕에만 불교 사원에 400여개나 존재한다. 왓 포 사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것들의 하나라고 한다. 입구를 지나 사원 내부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을 지닌 웅장한 탑과 건물들이 그 빛을 뽐내며 우뚝 서있었다. 길 곳곳에는 요가 자세의 우스운 형상이 많았는데, 근처에는 전문 마사지 인재 양성 학교가 있다고 하였다. 유독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압도적인 크기의 금빛 와불상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와불상은 1832년 라마 3세의 명으로 제작된 불상으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기 직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와불상 뒤편에서는 줄지어 있는 108개의 둥근 놋쇠 항아리에 동전을 넣으며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였다. 무더웠던 사원에서 나와 **수상보트**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메콩강을 건넜다. 수상가옥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들과 독채로 지어진 예쁜 펜션에 누워있는 서양인들의 풍경이 여유롭고 따뜻했다. 현지 가이드 분께서 강에 빵 쪼가리를 뜯어 던졌더니 시커멓고 커다란 메기들이 몰려들어 받아먹었다. 우리는 기내식 이후로 먹은 것이 없었기에 메기들의 빵을 보며 입맛을 다셨다. 다행히도 강을 건너서 태국 현지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 유명한 세계 3대 스프라는 똠양꿍의 맛을 보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 맛이 차례로 또는 한꺼번에 느껴졌다. 두 세입 먹었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맛이어서 많이 먹진 못했지만 다른 음식들은 생각보다 향신료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중국음식과 유사한 맛이어서 꽤나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숙소에 도착하자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방콕에서의 한 시간도 헛으로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근처의 타이 전통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타이마사지 1시간 코스를 골랐는데, 정말 너무 좋았다. 묵혀둔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고, 매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을 위해서 숙소에 돌아가 가벼운 몸으로 잠에 들었다.

둘째 날은 태국의 국립 종합 대학인 **타마삿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학교 탐방과 함께 현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다. 사실은 영어로 토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많이 걱정했던 일정이었다. 그러나 너무 겁을 먹었던 것 같다. 우리 조의 현지 학생 프록과 잭은 모두와 친절하고 재밌게 토론을 진행하였고, 태국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조의 토론 이후에는 각 조에서 한국 학생과 태국 학생들이 간단한 발표를 했는데, 나는 가위바위보에 이겨서 다행이었지만 다들 갑작스러운 발표에도 불구하고 잘 하셔서 대단하고 멋있었다. 학교에서 준비해주신 점심을 먹고 학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설명을 들었다. 학교가 생각보다 정말 엄청나게 크고 넓어서 놀라웠다. 거의 서울 하나의 구 수준으로 스케일이 컸고, 생활에 필요한 상점도 많았다. 이런 학교라면 몇 년을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타마삿 대학의 교수님의 강의와 깜짝 섭외로 태국에서 창업을 도전하는 우리학교 출신 졸업생 분들의 말씀도 들었다. 아직 태국에 온 지 2일 밖에 안됐다고 했지만 그 도전정신과 열정이 멋있어보여서 나도 동남아 취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저녁은 과거 가장 큰 규모의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적이 있다는 로얄 드래곤이라는 곳에서 먹었다. 메뉴 구성은 전 날의 저녁과 비슷했는데 좀 더 간이 맞고 모든 음식이 맛있었다. 마지막 일정은 방콕의 대형 야시장인 **아시아티크**에서 보냈다. 이전까지는 방콕

에서 사원이나 소도시, 강변의 수상가옥 등 전통적인 분위기만 느끼다가 아시아티크에서 현대적이고 세련된 상점을 보니 기분이 또 새로웠다. 함께 다니던 분들과 유명한 망고음식점에서 찐 찹쌀밥과 함께 나오는 생망고를 먹었다. 한국에서는 항상 냉동 망고만 먹다가 미지근한 생망고를 먹으니 처음엔 적응이 안됐지만 먹다보니 더욱 달고 부드러운 맛이 느껴져서 계속 먹고 싶었다. 거리는 매우 화려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녔다. 시간이 부족해서 집결시간이 다 되어 뛰어갔는데, 마침 불꽃놀이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구경하다가 숙소로 돌아갔다. 역시 일찍 자기엔 아쉬워서 야시장을 가기로 하고 택시를 잡아서 이동했다. 그러나 태국의 야시장은 10:30분경에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 우리가 내렸을 땐 이미 어두컴컴하기만 했다. 하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망고를 사서 숙소로 돌아갔다.

셋째 날은 새벽부터 천둥이 치고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방콕의 1월은 평균 강수일이 하루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숙소에서 늦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그치질 않았다. 버스를 타고 방콕에서 아유타야로 2시간 쯤 이동하여 **방파인 여름 별궁**에 도착했다. 아유타야는 방콕 이전 태국의 옛 도시였고, 방파인 여름 별궁은 14세기 중엽에서 18세기까지 번성하였던 태국을 이끌던 아유타야 왕조의 별장이다. 불교 사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건물이 희고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호수와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서 유럽에 온 기분이었다. 비는 그치기 시작했지만 아직 날은 개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밝은 날이라면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았다. 다음으로 고대 사원을 향해 이동하였다. **왓 프라 마하탓과 왓 프라 시산 펫**을 관광했는데, 먼저 왓 프라 마하탓에서 유명한 보리수나무의 목 잘린 불상머리를 실제로 보게 되었다. 아유타야는 1767년 지금의 미얀마인 버마에 의해 함락되었고, 당시 왕은 행방불명되어 왕실은 멸망되었으며, 황금빛의 불상은 뜯겨져 나가고 목이 잘리는 등 황폐화되었다. 지금도 아유타야의 유물을 보려면 버마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곳은 1956년에서야 발굴되어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완벽 복원은 어려웠고, 1991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수많은 불상의 목 없는 형체는 조금 무섭게 보일 정도였고, 날씨까지 어두워서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다. 당시의 전쟁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했을지 상상되고, 한국이 외세의 침략을 받던 상황도 겹쳐서 떠올랐다. 석탑과 석조건물들의 생김새가 2년 전에 갔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크메르 양식과 스리랑카 양식이 공존하는 건축 방식이라고 하였다. 버스를 타고 조금 더 이동하여 왓 프라 시산 펫을 관람했다. 이곳은 좀 더 붉고 중간에 잘리지 않고 보존된 높은 탑과 같은 건물들이 많았다. 한 때는 이곳도 화려하고 빛나던 곳이었을 텐데 이렇게 기둥과 터만 남고 여기저기 빛바랜 모습을 보니 허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강으로 이동해서 **선셋보트**를 탑승했다. 선셋은 보지 못했지만 강은 넓고 보트는 빠르게 달려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은 '전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라고 불리기도 하는 **카오산 로드**로 마무리하였다. 저녁식사를 따로 하지 않고 카오산 로드에서 각자 해결하기로 하였다. 카오산 로드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특히 덩치가 큰 서양인들이 많았다. 우리 학교에서도 교환학생들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남녀 구분 없이 훤칠했다. 나와 일행들은 저녁밥으로 유명한 국수집에서 고기국수를 먹었다. 맛은 한국의 뚝배기 불고기 같기도 하고 뜨끈한 국물이 그리웠던 차에 행복함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카오산 로드 구석구석을 다니기 시작했다. 특히 많았던 것은 탁 트인 야외 테라스에서 즐기는 술집을 비롯한 식당,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태국 전통 마사지 샵이었다. 가게 안에서 기타를 치며 유명한 최신 팝송을 부르기도 하고, 클럽을



연상시키는 신나는 댄스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조명도 아름다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신나고 즐거워보여서 덩달아 신이 났다. 상인들은 "우리 마사지 X나 잘해!", "완전 싸!!" 라며 유창하게 한국말을 구사하며 흥정을 하였다. 우리는 새벽 1시가 조금 넘는 시간까지 즐겁게 놀았고,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놀러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콕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은 밝고 시원했다. 일찍 일어나서 **위험한 기찻길 시장**으로 향했다. 어릴 적 TV에서 기찻길 바로 양옆에 시장이 펼쳐져 있고, 갑자기 급하게 시장을 치우는 해외 소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 땐 저런 데도 있구나 하며 놀라기만 했었는데 내가 직접 오게 되니 기분이 색달랐다. 기찻길 옆의 시장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져 있었다. 과일과 생선 등 먹거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비좁고 답답해서 이런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으로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에 갔다. 3번째 배를 타니까 처음엔 또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대도 안했는데…… 물 위에 수상 가옥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상점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작은 배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빼곡히 들어서있었다. 정말 방콕에서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웠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을 돌다가 물건을 살 땐 배를 끌어당겨서 구매한다. 기념품부터 과일, 간식, 팟타이 등 별의 별 것이 다 있었는데 교수님들께서 두리안을 사주셔서 처음으로 맛을 보았다.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의 냄새는 지나가다 찡그리며 많이 맡아봤는데, 맛은 한 두 번 먹으니 나름 향기롭고 중독적인 맛이었다. 점심은 샤브샤브와 비슷한 수끼를 먹었고, 마지막 일정으로 씨암 쇼핑가를 구경했다. 씨암은 한국의 백화점이랑 별 다른 것이 없었고, 한국 화장품과 옷가게, 음식점이 많아서 놀라웠다. 저녁은 그리웠던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며 방콕과의 이별을 위로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갈 때까지 한 순간도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던 여행이었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이번 태국문화체험을 통해서 매우 값진 경험과 추억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현지 가이드 분들께서 항상 친절하셨으며, 한국어가 매우 유창하셨고, 정말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상황과 장소에 맞는 설명과 유의 사항들을 꼼꼼히 알려주셔서 어떤 사고나 문제없이 무사히 문화체험을 마칠 수 있었다. 문화체험 이후로는 이전까지 알고 있던 태국에 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쁜 것만이 아니니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내가 본 태국인들의 모습은 현지 가이드 여러 분들과, 마사지를 하거나, 각 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느 한 분도 어두운 표정 없이 생기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관광객 중의 하나였지만 그들과 함께 기분 좋게 어울릴 수 있었다. 또한 아유타야 왕국은 버마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재건된 태국 왕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외세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이러한 태국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태국인들에게 국민적 자부심을 부여하고, 강력한 정치적 권력의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태국의 역사적 업적에 대하여 인정하는 바이며, 각 국가의 문화와 특수성을 고려한 정치체제가 필요함에 있어서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 더불어) 태국의 현재 정치체제의 더욱 큰 민주적 변화가 없다면 국민적 수준의 큰 성장과 발전이 힘들다고 본다. 특히 길거리 곳곳에 국왕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치 북한의 모습과 유사해 보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농업, 자영업에 종사하며 발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의 해결이 가장 큰 해결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ASEAN국가 중 경제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였고, 수많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 지원을 받아 큰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이번 문화체험으로 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만한 곳이라는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이론상으로만 공부하다 직접 방문하여 단 며칠이라도 경

험을 한 것이 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 태국뿐만 아니라 근방의 여러 동남아국가들에 대해서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졸업 후 진로의 방향으로 고려해보려고 한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저는 제게 과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태국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기억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회를 주신 주관기관과 대학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굳이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주관기관인 모두투어 측 가이드 분들께서 일정 변경에 대한 고지를 좀 더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정에 맞추어 기대하고 결정한 개인적인 사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궁을 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또한 일정 내의 장소 간 시간 분배가 융통성 있고 균일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남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대학에 바라는 점이라면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임을 알기에, 현재로써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는 점에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통상학 교육의 연장선으로서 대상 국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학습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인상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국제학부에서 매 학기마다 열리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으면 한다. 특히 국제학부를 복수전공하는 학우들에게는 동아시아 입문, 동남아시아 입문 등을 비롯한 모든 국제통상학에서 주요 대상으로 다루는 국가들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부터 국제통상을 부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2학년 때 캄보디아에 다녀온 이후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던 ASEAN지역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국제학부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남아지역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통상학 복수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국제협력의 이해 등 최근 ASEAN+3 국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세계화가 급속도로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으로 칭해지는 미국, 유럽의 시대를 지나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이해하고 진출하려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과 시도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혼자 여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언어의 장벽이 더욱 높고, 치안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마련한 문화체험의 기회는 놓치기에 매우 아깝고 소중한 기회이기에 더욱 많은 학우들에게 가깝고도 먼 우리 주변의 지역에서 새로운 경험과 함께 또 다른 도전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